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급물살

‘공공주도’로 매립 전환 한국농어촌공 직접개발 군산항 준설도 가속화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지난 3일 새 정부의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정책 기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새

만금 산업단지 개발 방식을 민간사업자의 대행개발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접개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방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산업단지 매립 및 단지 조성 공사를 직접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대행개발을 하도록 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산업단지 매립

공사를 수행할 민간 대행개발사업자를 공개 모집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약 2년간 매립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와 연계된 군산항로 준설에도 지장을 줬다.

이번 개발 방식 변경으로 공정률이 21.3%로 저조했던 산업단지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군산항로 준설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후속 조치로 사업시행자의 직접매립 방식을 실시 계

획에 반영하고 농어촌공사의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산업단지 매립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 산업단지로 차별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한국식품연구원 신청사 개청식

지난 3일 한국식품연구원 대강당에서 송하진 도지사, 박용곤 한국식품연구원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황태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박성일 원주군수, 원광연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유관기관장 등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식품연구원 신청사개청식 및 창립 30주년 기념식 행사가 열렸다.

뿌리기업 해외진출 판로 키운다

도, 슬로바키아 수출상담회사 220만불 계약 체결

전북 뿌리산업의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해온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JIAT)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동차융합기술원(원장 이성수)과 도내 5개 뿌리기업들로 구성된 ‘유럽 금형 시장개척단’은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체코 및 슬로바키아를 다녀왔다.

시장개척단은 6개월에 걸쳐 바이어 매칭 등의 사전준비를 하고,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4개 회사를 방문하여 현지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관련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2곳을 방문, 동유럽 자동차산업과 시장동향 파악과 함께 도내 기업과의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대승금형

(대표자 김흥기)은 현지 수출 상담회를 통해 슬로바키아 ‘A사’와 올해 약 220만불의 금형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었다.

대승금형은 지난 2010년 자동차융합기술원 금형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금형 전문기업으로,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2016년에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지난 2017년 대비 현재 약 300%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수출 유망 기업이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은 “이번 동유럽 금형 수출 계약 성사는 일시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전북 뿌리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며, 도내 뿌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임업인 한마음대회 1000여명 화합의 장

제15회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지난 3일 원주 상관생활체육공원에서 송하진 도지사, 박성일 원주군수를 비롯한 임업관련 33개 기관 단체 1,000여명(전북도 등 14개 시·군 480명, 서부지방산림청 등 2개 기관 130명, 시·군 산림조합 등 6개 단체 390명)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마음대회는 도내 임업관련 유관기관·단체와 도·시·군 산림부서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을 마련,

소통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일체감 조성과 선진 산림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임업인 가족 모두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기관별 단합과 결속강화를 위하여 시·군과 해당 산림조합 직원이 한 팀을 구성, 총 18개 팀이 전략 줄다리기, 색판 뒤집기, 미션 릴레이 등 친선경기를 진행해 우승 1팀, 준우승 1팀, 장려상 2팀, 특별상 1팀에게 부상을 수여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생태관광 1번지 도약 발돋움

군산 청암산 에코라운드서 축제 개최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개발 ‘한마음’

민선6기 전북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지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인과 이를 연계한 주민 소득 증대 등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생태관광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본격 시작됐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4일 군산 지역 생태관광지인 청암산 에코라운드 일원에서 3천여명의 도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생태관광 축제’를 열고 전국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자 다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생태관광지를 잘 보전하고 가꾸는 일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며 “생태관광에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고 주민에게 경제적 이익까지 돌아가는 주민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생태관광축제는 트래킹과

먹거리체험, 토종어류 방류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청암산 구슬피 전국 등산축제’와 연계해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옥산한과, 함호박 등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기획한 특별공연 등 주민 자치행사들도 함께 열렸다.

‘청암산 에코라운드’는 일제 강점기인 1939년 군산에서 처음으로 수원지로 조성, 1963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8년 3월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사람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40년 이상 사

람과 인공의 때가 묻지 않은 군산호수(2.34km)와 청암산을 중심으로 청정된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곳이다.

멸종위기종인 가시연꽃을 비롯해 왕버들나무 군락지 등 600종 이상의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서식처로서 도보 여행객을 위한 구불길 여행지로도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청암산 오토캠핑장과 더불어 최근 조성된 꼬마숲 놀이마당까지 자연 속에서 숲을 느낄 수 있는 건강과 생태관광을 함께 체험할 수 있어 남녀노소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특히, 이 곳은 10~11월에는 군산호수의 드넓은 억새밭이 장관을 이뤄 청명한 하늘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국정원 수사방해한 현직검사 오늘 구속 심사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관련 증거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호중(50·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는 6일 열린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장 전 지검장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재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 검사 등 당시 국정원 파견검사 3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영장심사를 연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국정원 현안 TF’에서 활동했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종합분석국장도 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현안 TF 소속으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 등을 받

고 있다.

특히 검찰의 국정원 심리전단 압수수색이 벌어지자 가짜 사무실로 검찰 수사관들을 유인하고, 조작된 서류를 압수수색 대상 물품으로 내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과 문모 전 국장은 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검찰은 ‘사법 방해’ 혐의 수사를 위해 지난달 27일 장 전 지검장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은 물론 긴 기간 동안 이뤄진 재판 과정에도 관련한 사실이 있다”라며 “사법 방해 내지 수사·재판 관여 행위”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KFD
한국농어촌공사
“활기적이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지사장 신교준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